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1년 5월 4일

음력 4월 2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가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138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나의 마음을 잘 보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봅시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일본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치은 인간들이 막상 자연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사회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종령 효강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욕심 가는대로 자신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사회 지도층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스스로를 해치고 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후.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 만들어야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요, 진리의 등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 사바세계에 나투신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인간(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살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펼쳐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중생들이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주어 목숨을 있게 하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 주어 편안하게 해 주며, 가난하고 고독한 자를 보호하여 주며, 선정을 닦은 이를 위하여 옷과 밥을 보시하여 보살피 주는, 이 네 가지 법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닮음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은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총리원장 지성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과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화합과 이해, 사랑과 보시로써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원망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나를 버리고, 크고 동글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명하여 참다운 ‘나’를 찾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용맹정진 합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운주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후.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종조법설

고통의 원인을 없애라

고(苦)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남에게 구하지 말 것이다.

곧 참회하고 원한을 없앨지니라.

“역사의 큰 종단으로 창출하자”

제77회 춘계강공회에서 내일을 위한 의지 밝혀



▲효강 종령 예하께서 춘계강공회에 참석한 승직자들에게 법어를 하고 있다.

전국의 스승님들이 일심(一心)으로 법력을 모아 불법과 수행으로 자기 성찰과 교세 발전에 총 매진하자고 다짐을 하였다.

불교총지중 총리원이 주최한 제77회 춘계강공회에서 승직자들은 종단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도를 위한 주제를 통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강공회는 외부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강공으로 경북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전 사원의 현직스승과 기로스승이 대

거 참석하여 강공의 의미를 한층 높이 세웠다.

효강 종령 예하는 개강식 법어에서 “우리 종단은 짧은 역사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의 참회와 여건을 개척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직자가 신명(身命)을 바칠 각오로 수행에 힘써야 종단의 역사가 바뀐다.”고 말했다. 지성 총리원장은 강공 인사말에서 승직자에게 “3일간의 강공회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교육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는 시간이 되자.”고 말했다.

효강 종령예하, 전법관정 수계의식 주도

수계승직자 대보리심 발심



▲전법관정 의식을 마친후 수계받은 승직자들이 계사아사리와 자리를 같이했다.

불교 총지중 총리원은 4월 13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 금강계단에서 총기 40년 전법관정 수계 법요식을 밀교연구소 주관으로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전법관정 수계는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제자가 되어 복과 지혜를 닦아 구경성불을 이루겠다는 의식이다. 수계의식에 앞서 대아사리 계사인 효강 종령 예하의 계사 아사리 위

촉장 수여가 있었다. 계사 아사리 의식에서 효강종령 대종사는 기로스승 해암종사, 원봉대정사, 우승종사, 총지화지수를 증계아사리로 위촉 하였다. 이어 지성 총리원장을 전계아사리에 수여했으며, 전임 법장원장을 지낸 법공종사를 교수아사리에, 집공을 맡은 법등 대정사를 갈마아사리로 위촉하였다. 결계 아사리는 시법사 환수원지수, 선립사 십지장 지수가 각각 위촉 받았다. 전법관정 수계의식에서 아사리계를 받는 인선 총무부장과 11명의 수계스승이 귀명참회문을 부처님전에 읽었다. 대아사리 효강 종령 예하는 청사 봉독(시방세계 불보살님께 계사가 되어 주기를 청함)에서 부처님께 불성계 화상(시방세계 불보살님께 계사가 되어 주기를 청함)에서 부처님께 불성계 화상(시방세계 불보살님께 계사가 되어 주기를 청함)이 되어주시기를 봉청하였다. 계속된

의식에서 전계아사리 지성 총리원장은 가지기도의계를 마친 후 수계심덕교설(수계자의 마음가짐)과 삼취정계교설(계를 지킴), 사중금계와 십중금계를 교설하였다. 수계자들은 서수인지문에서 대보리의 원을 퇴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관정 및 서수의식’에서 대아사리 효강 종령 예하는 향수를 손끝에 묻혀 오불(五佛), 오지(五智)를 상징하는 수계자의 이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슴, 목에 뿌리는 관정수여의식을 행하였다. 또한 전계아사리 지성 총리원장은 서수를 수계자들에게 수여하였다. 이날 봉행한 전법관정 의식은 총지중의 독특한 불교수계의식이다. 이의식을 통하여 수계스승들은 보리에서 퇴전하지 않고 모든 계법을 준수하게 된다. 이날 수계자들은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과 종단 교법을 엄수하고 중생제도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이날 전법관정수계는 인선 관정사주교, 도현 운전사주교, 법일 벽통사주교, 자행정 벽통사전수, 자인행 운전사전수, 서령 해정사주교, 덕광 건화사주교, 묘홍 법정사주교, 지현 단음사주교, 보현 건화사전수, 정원 정각사전수, 덕현 총지사전수가 받았다.

총기40(불기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사감원장 법상인

총리원장 지성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총무부장 인선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수현
사회부장 우인
총리원 임직원 일동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시정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우
각 사원 주교 및 스승일동

(재) 사회복지재단
중앙총의회 위원
총지중 유지재단
국제문화센터건립 추진위
전당건설 위원회

법장원
밀교 연구소
총지중보 및 종보통신원
바라밀공부방
효사랑상조회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원의회, 중앙종의회 등 연속회의 개최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후임 임원선출



▲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정사가 의원들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총지종은 제77차 춘계강공회를 원의회에서는 지성 총리원장 개최하기 앞서 4월12일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의를 했다. 원의회에서는 지성 총리원장과 인선총무부장, 시정재무부장, 수현교정부장, 우인사회부장, 선도원 총지사 주교, 법경 밀교연

임원선출건에서 지성이사, 선도원이사, 시정이사, 법등이사가 임기만료후 유임되는 안을 가결했다. 사회복지재단이사회는 결산심의를 통과시켰으며, 교도 가정지원금의 연장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안성 감사의 유임과 지광 감사의 임기 만료 후 법무 정사를 선임했다. 13일에 열린 중앙종의회 대원 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원의회, 유지재단과 복지재단회의에서 통과된 임원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또 의회에서는 동해중학교 의장 이사장 만료 후 후임에 지성 총리원장, 수현 감사의 후임에 안성 국광사 주교를 각각 추천했다. 인선총무부장은 벽룡사 사원 매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구원이 참석했다. 안건으로 총리원 수입·지출 결산 심의건과 승직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재단이사회에서는

“보살님 왕생극락 하소서” 故 정광행 보살 49재 회향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호트려짐없이 불공하시는 모습과 우리 종단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열정이 눈에 선합니다.”

경인지구 합창단의 은은한 애도의 찬불가속에 총지사 서원당에서 5월 3일 故 정광행보살의 49재 회향 천도재를 유족과 스승 및 교도들이 함께했다. 총지사 선도원 주교가 집공하였으며 유족대표인 장남 흥건화 교도가 추선사를 낭독하였다. 이어진 추모문에서 김은숙 총지사 회장은 “스승님과 신도들

도 보살님을 잃은 슬픔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리움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극락왕생을 발원드립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해 참석한 유족과 교도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정광행 보살은 진각종에서 수행하다가 총지종 창교때부터 창종조이신 원정 대성사님을 모시고 수행하였다. 총지사에서는 다년간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교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고 모범이 되는 수행생활을 하였다.

슬하에 4남 2녀를 두어 모든 자손들이 사회에서나 절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팔 이상으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며느리인 총지사 손경옥 교도는 정광행보살의 49일 기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원당에서 아침, 저녁 상식불공을 올려 시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날 재는 지성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과 서울 경인교구 스승, 마니 합창단, 각 사원의 많은 교도들이 동참하였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회장 선목)’로부터 총지사가 감사패를 증정 받았다.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풍경소리 창립 12주년 기념법회에서 그동안 기여한 단체에게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주었다. 총지사는 풍경소리 창립 때부터 좋은 글과 사진을 받아 2호선 지하철 역삼역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불법과 감동 어린 글을 읽게 하여 교화와 불법을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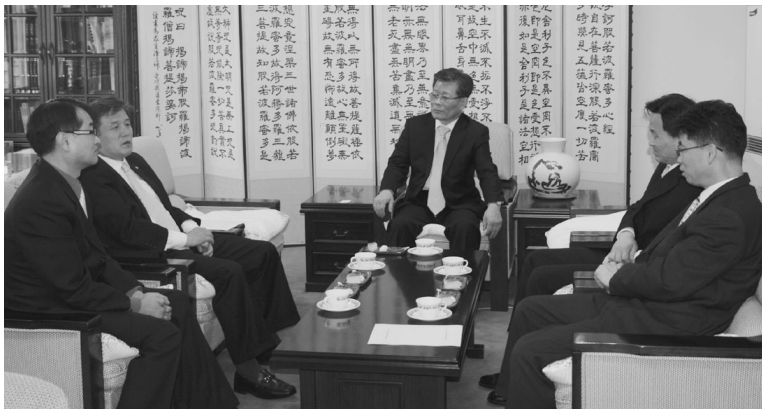
죽비소리

지도자

왕은 온 나라의 우리들을 받는 바이니 마땅히 다리와 같이 만인을 건네주고 저울과 같이 친소에 다 평등히 하라

- 잠보장경 -

이진복 국회의원, 총지종 예방 지성 총리원장 환담 나뉘



▲ 지성 총리원장은 이진복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총지종 지성 총리원장이 이진복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인선 총무부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김종인 연구원이 배석하였다.

지성 총리원장과 이진복 국회의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답소했으며, 종립학교 동해중학교의 근황에 대하여 환담하였다. 한편 이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종립학교를 졸업했다.

동해중 이사회 2010년도 회계보고 승인 현재 학급수 유지하기로

불교 총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4월 22일 관음학사 제135회 이사회가 열렸다. 의장 이사장을 비롯하여, 인선이사, 선도원이사, 대원이사, 강경중이사, 김무남이사, 수현감사, 박정선감사가 참석하였다. 회의안건은 201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 감사 보고와 승인이 있었다. 저출산 관련하여 교육청의 학급 감축안에 대하여 현재 학급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5월 10일 임기가 완료되는 의장 이사장 후임에 종단



▲ 동해중 이사회에서 의장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서 추천한 지성 총리원장이 후 이사장에 선임되는 절차에 교육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대해 논의하였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총지 연희단 공연 준비



▲ 연꽃의 모습으로 우아하게.....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총지종 총지연희단이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총지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총지사 연희단은 서울·경인교구사원 소속으로 구성된 40명의 보살들로 총지사 박묘정교도에게 춤 연습을 지도받고 있다.

연희단은 봉축위에서 정해준 전체율동 “비움 행복의 꽃씨”와 그룹별 율동 “연등꽃 피네”, 등 2곡을 연습하고 있다. 행사참여는 5월 7일 오후 4시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4/15 10,000	기 로 불멸심 4/25 10,000	법천사 김정숙 3/29 5,000	실보사 이순옥 4/20 5,000	총지사 이인성 4/7 30,000
개천사 전경택 4/25 20,000	기 로 사홍화 4/25 10,000	법천사 시정 4/25 10,000	실보사 정법계 4/20 10,000	화음사 권정희 3/28 5,000
관성사 김봉기 3/30 10,000	기 로 상지화 4/25 10,000	법천사 원만원 4/25 10,000	실보사 조순애 4/7 50,000	흥국사 지정 4/15 20,000
관성사 박길화 3/30 10,000	기 로 수증원 4/25 10,000	벽룡사 이종호 3/29 26,000	실보사 해 정 4/20 10,000	강순란 4/4 5,000
관성사 황성녀 3/30 10,000	기 로 총지화 4/25 10,000	선립사 심지장 4/19 10,000	실지사 이숙자 3/30 20,000	기업은행 4/1 100,000
관음사 신막심 4/1 10,000	단음사 천공 4/5 4,000	선립사 정복지 4/19 10,000	운천사 반아화 4/22 10,000	김성민 4/2 50,000
교산수원 권성수 4/20 10,000	덕화사 하순옥 4/19 5,000	성화사 우담배라회 4/14 50,000	자석사 CCH 4/19 10,000	박말조 4/25 5,000
기 로 대 관 4/25 10,000	만보사 민순분 4/10 40,000	수인사 김봉기 3/30 10,000	정각사 구정희 4/13 20,000	신 바 4/4 100,000
기 로 대자행 4/25 10,000	밀인사 이재갑 4/8 20,000	수인사 장영택 4/1 50,000	정각사 김문주 4/8 10,000	신 바 4/11 100,000
기 로 밀공정 4/25 10,000	밀인사 이해성 4/15 20,000	승천사 원 봉 4/15 10,000	정각사 무명씨 3/29 50,000	안효정 3/28 20,000
기 로 법수원 4/25 10,000	밀인사 정정희 3/30 5,000	승천사 지선행 4/15 10,000	정각사 이정선 4/21 5,000	이혜원 3/30 5,000
기 로 법장화 4/25 10,000	백월사 이갑진 4/25 10,000	시법사 환수원 4/15 10,000	지인사 허성동 4/19 20,000	이희원 4/5 10,000
기 로 법지원 4/25 10,000	백월사 진평 4/20 5,000	실보사 이순옥 4/6 5,000	총지사 유성열 3/31 1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제 77회 춘계강공회 강의 내용

효강 종령 예하 정신강좌



▲효강 종령 예하

천년 고도 경주에서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강공회와 관불을 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총지종의 교세가 발전하고 중생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단 역사는 짧습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한국불교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고, 우리종단을 여러모로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교세가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보면 나쁘지 않으나 교세를 발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세는 불상을 모시거나 개금을 잘하는 것보다 그 절을 담당하는 주교나 승직자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확실한 법력을 갖추었을 때 사원은 열악하더라도 사람이 모인다고 봅니다. 서울 불광사는 조계종

에서 큰 절입니다.

신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중 한사람이 설법을 잘해서 한번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 합니다. 절 근처의 사람들을 제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화령정사가 지난번에 내인생의 멘토 붓대를 가지고 불광사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불광사에서 책을 보고 초청받아 설법을 했습니다.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곳도 불단도 조촐하게 되어 있고 장엄도 소박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불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상을 모시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정님께서도 시대의 따라서 방안을 정해라고 해서 시작해서 조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상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법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교의 경우에도 모든 절에 다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곳을 이끌어가는 주교의 법력에 의해서 번창함이 정해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기계이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해가 거듭하고 나아질수록 기능이 다양해 집니다. 그것도 역시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의 두뇌가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화도 하드웨어

이런 것 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종단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짧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하려고 생각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높이면 발전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법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하면 법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내가 법과 수행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찰의 법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다는 내용처럼 법과 수행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만

제 77회 춘계강공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의 정신교육 법어와 법상인 전수 강의, 법경정사 강의, 김종인 연구원 강의를 요약·정리하여 지면(3, 4면)에 올렸습니다.

“신명(身命)을 바쳐 중생교화에 정진하자”

가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경의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승직자가 되는 길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도 다른 이를 해치지 않으며 자제하는 사람은 세간의 존경을 받는다.

-적대하는 무리를 적대지 않고 평화롭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승직자라 한다.

-지혜로서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아는 깨달은 사람이 승직자이다.

《법구경에 스승에 대하여》에서 나온 글입니다.

정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보배를 가지고 가다가 바다에 빠뜨려 그릇을 가지고 간질라고 할 때 나는 세세 생생으로 찾고 말했다.

해신도 감동했다는 말과 같이 해보고 안되면 치우지 말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천신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그 동안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정사 전수가 되어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남지 않은 나이에 종단에 뭐라도 남기고 가야 하고 종조님의 창조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진해야 가능합니다. 뼈를 깎고 신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원에 가면 교도들이 얼굴이 빛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삼밀관행은 경에 있는 대도입니다.

우리는 정승을 잘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조님의 말씀에 있는 정진 중에 마장은 시련이다. 정진 전은 자격미달이요, 정진은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니 정진 중에는 마장이 항상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럴 때 낙심을 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인데 합격을 하려면 그럴 수 록 더욱 정진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항상 종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년 7년 고개가 있는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안됩니다. 저도 4년하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것을 정진으로 거듭해서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기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 성장하나니 사람은 고난 하여 성장하나니 고난 없이 즐거움은 있을 수 없다. 고난을 이겨 내서면 인격이 완성되느니라'

그것을 이겨나가면 큰 고목이 되는 것입니다. 대게 큰 인물이 되는 거나 여러 가지 보면 성인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보게 되는 합격되지 못하면 그 길로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 겁을 내면 잡아 먹고하고 잡으려고 대책을 세우면 이길 수 있다. 용기와 분발로 열심히 전진 노력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교화 중 오해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겨나가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합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화의 방편을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은 신명을 바칠 각오가 없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종단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시한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단의 의례법과 진언공덕’

자석사 주교 법상인 전수

정각사에서 교무생활 시작했으며, 그 당시에는 진언염송을 통해 부처님을 뵈는 것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정각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총지종의 진언수행이 대단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융맹정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 또한 교도들을 위하여 진언 불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선 교화에 나서면서 총지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화활동을 하면서 교도들과 부대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진언염송을 통해 소원을 이루고 재난에서 해탈하는 것이 교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음뒀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30여년 동안 불공을 해오면서 우리 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언들에 대해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 나름대로 법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주제는 '진언의 공덕과 의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단에서 사용하는 진언을 염송하면서 어떤 느낌과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염송정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상이 잘 되어야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불공이라 하여 영식천도불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식천도보다도 더 좋은 법은 영식의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지 않고는 어떤 천도이든 소원성취이든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장소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의 문제는 참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이 많아서 자식들이 고통 받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보이고, 자신자신이 달라져 해탈

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업장소멸을 위한 제방법은 바로 참회불공입니다. 업장소멸과 참회불공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상불공을 행해야 합니다.

조상불공은 바로 근본을 아는 불공



▲법상인 전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업장소멸을 위해 참회하면 해탈의 길 열려

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는 다른 것이 발라질 수가 없습니다. 조상불공을 통해 얻는 것은 근본을 아는 것이고 불공을 통해서 부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조상 불공이라 할지라도 불공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청정해야 도와주십니다. 재난을 소멸하고 서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참회가 있어야 모든

것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풀립니다. 가정화목을 위하여 진언행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덕은 준비된 사람에게는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풀립니다. 가정화목을 위하여 진언행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덕은 준비된 사람에게는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풀립니다. 가정화목을 위하여 진언행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덕은 준비된 사람에게는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풀립니다. 가정화목을 위하여 진언행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덕은 준비된 사람에게는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풀립니다. 가정화목을 위하여 진언행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덕은 준비된 사람에게는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 체득해서 얻어지는 모덕이 더욱 정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종단의 제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서원불공에는 의례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은 의사이고 교도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환자는 여러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듯이 교도들에게도 필요한 불공법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교도에게 불공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스승은 반드시 교도에게 맞는 불공법으로 불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교도에게 성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교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는 진찰과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처방은 반드시 진언이어야 합니다. 진언을 통해 불공을 해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영식천도불공의 경우, 진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영식에게 강하게 사용하지 말고 처음에는 항상 달래고 설득해야 한다. 즉, 업장소멸의 불공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업장소멸 불공을 많이 하면 애착이 소멸되고 그것이 천도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종단의 중심진언인 육자대명왕 진언 '옴마니반메훔'은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준제진언은 청정을 유지하게 하고,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으로 바로 부처님과 직접 연결해주는 진언입니다.

정법계진언 '옴람', 호신진언 '옴치림', 준제진언, 육자진언, 광명진언, 수호국계주진언 등을 잘 조합하여 불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각각의 진언들에 대해서 실제 체험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승단의 모든 스승님들의 융맹정진과 체득을 기대합니다.



▲자성통리원장이 승단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춘계강공회에 참석한 스승님들.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승직자.

“의식의 장엄화와 특화된 장례불공의 개정을 위한 제언”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의식’ 시연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3차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총책토론회’에서 제안한 종단의 불사법요 개정안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실제 시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단의 불사법요 가운데 ‘상장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사법요 가운데 염속함과 장중함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상장례’의 불사법요와 49재 천도불사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의식은 독송이 단조롭고 법구가

로된 독송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장례와 천도불공을 모두 시연을 할 수 없고, 입관불공과 발인불공만 시연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입관불공입니다. 유족이 아닌 경우에 염습과 입관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을 집전하는 스승은 입관에 참석하여 불공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굳이 입관 불공을 올릴 필

썬습니다. 앞의 순서의 역으로, 가슴 위에 뿌리며 “중앙에 비로자나불”이라 외칩니다. 오른쪽(東) 옆구리에 뿌리며 “동방에 아축불”이라고 외치고, 발에 뿌리며 “남방에 보생불”이라 외칩니다. 왼쪽 옆구리에 뿌리며 “서방에 아미타불”이라 외치고, 끝으로, 목 위에 뿌리며 “북방에 불공성취불”이라 외칩니다. 가지토를 뿌리고 난 다음, 유족들에게 광명진언지를 한 장씩을 줍니다. 유족들이 직접 광명진언지를 관속에 넣거나 망자의 몸 위에 올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집공자가 왼손에 염주를 쥐고 오른쪽으로 오색광인을 하여 광명진언을 7편으로 외우고 나서 왼손을 금강권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염주를 쥐고 육자진언을 21편으로 외웁니다. 진언연송이 끝나면 흡자오인을 하고, 끝으로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계송〉을 낭독하고 마칩니다.

이상이 입관 불공입니다. 입관을 하고 나면 성복제를 지내고 정식으로 문

「입관불공시 오지(五智)와 오불(五佛)」을 청명...

식순의 내용보다 독송방법이 더욱 중요...

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관의식에 참석하여 불공을 올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불공을 올립니다. 먼저 염과 착의를 하는 동안 참관실에서 3.7의례 1회 향마염송법으로 불공을 올립니다. 1회 향마 염송이 끝나면 착의(着衣), 착관(着冠), 정와(正臥)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육자진언을 금강염송으로 합니다. 착의가 끝나면 흡자오인과 회향서원으로 마치고 유족들과 함께 영안실로 들어갑니다.

영안실에 들어가 입관의 마지막 의식을 올립니다. 집공자는 준비한 왕생다라니를 망자의 시신 위에 덮습니다. 그 다음, 가지토를 망자의 몸 다섯 군데에 뿌립니다.

이때 오지(五智)를 크게 외치며 몸 다섯 군데에 뿌립니다. 목 위에 뿌리며 “성소작지”라 외치고, 왼쪽 옆구리에 뿌리며 “묘관찰지”라 외칩니다. 발에 뿌리며 “평등성지”라 외치고, 오른쪽 옆구리에 뿌리며 “대원경지”라 외칩니다. 끝으로 가슴 위에 뿌리며 “법계제성지”라 외칩니다. 그다음, 오불(五佛)을 외우며 다시 몸 다섯 군데에 가지토를

상을 하게 되는데, 다시 빈소에 가서 영식천도불공을 올려줍니다. 불공을 마친후에는 발인시간, 장례일정 등을 묻고 불공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발인불공을 시연하였습니다. 발인불공의 핵심은 유족들과 이별을 고하는 영결의식이자 상여가 떠나는 발인의식이므로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고 망자를 편안하게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입관불공 다음으로 중요한 불공의 의식이 할 수 있습니다. 중? 의식인 만큼 발인불공시에는 동발을 사용합니다. 발원과 계송, 진언 염송시에 동발을 치도록 합니다. 발인시 시간여유가 충분한 경우가 있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식신의 의식을 모두 집공하고, 시간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독송토록 합니다. 최소한 ‘무상계, 추복법문, 왕생가’는 반드시 독송하토록 하고, 그의 법문이나 발원문 등은 형편에 따라 가제(加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공자 재량으로 융통성 있는 운용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자기 변신을 이루어야 한다

〈김종인 연구원 / 법장원〉

I. 조직 일반

● 조직은 조직 자체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직에 강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하여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이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그것을 모인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뜻이 함께 하는 범위는 매우 애매하고 또 서로 같은 뜻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적을 뚜렷히 해야 하고 명문화해야 하며, 그 명문화된 목적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이 뚜렷한 목적이 명문화 된다고 해서 그 조직의 실질적인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조직의 강령들은 하나의 형식적 요건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단법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조직 자체의 목적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수많은 사회재단과 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개인의 명예 추구와 재산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 조직은 구조물이다

조직은 개인의 평면적 집합이 아니라 구조물이다. 구조물로서의 조직은 목적 추구에서의 안정성, 지속성, 자기완결성을 부여한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조직은 개인의 단순한 합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개인의 단순한 합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조직은 특정 개인들의 사고나 심리의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제 3자에게 목적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한다.

조직은 24시간, 365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각 개인의 시간 투여의 합산을 넘어서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100만명의 인삼밭을 20사람이 개별적으로 24시간 365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5명이 조직을 나누어 지키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매 상



황마다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일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많은 경우 주어진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정해진 목표와 방법 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다 이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도 합의의 도출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자기완결성은 종종 새로운 것에 대한 폐쇄성을 가진다. 조직은 자기 운동 법칙과 문화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법칙과 문화와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 여부를 떠나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 조직은 역할분담체이다

조직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구조적 결합체인 만큼 부분별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조직 내에는 늘 구성원을 균질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균질화는 조직 자체의 발전을 부정하게 된다. 조직의 각 부분은 질적인 균질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의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전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구성원들 간의 공통분모보다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데 힘써야 한다.

조직은 개인의 전 인격적 헌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필요한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조직원의 전인격적 헌신을 요구하는 조직일수록 조직 자체가 구체적으로 구성원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태에서의 조직 구성원 개인의 헌신은 조직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II.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조직은 변화 발전해야 한다

조직이 하는 역할의 발전 뿐 아니라 조직 자체의 자기 증식과 구조변화를 해야 한다. 조직은 구조의 변화 없이도 그 역할을 발전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조 변화가 없는 조직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틀 속에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94년 IMF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 본부를 설치하고 이후 전략기획실을 설치한 등은 구조의 변화 없이 조직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 조직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직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조직은 이러한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자기변신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 변화가 매우 빠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는 교육제도와 조직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면 알 수 있다.

● 본원적 유대를 극복해야 한다

많은 경우 조직은 본원적인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에서 출발한다. 본원적인 유대관계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원시적인 관계이며 폐쇄적인 관계이다. 생명력이 강함만큼이나 확대와 발전에 한계가 있다. 본원적인 유대관계에서 벗어나 규약과 규칙에 기반한 근대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 창의성을 수용해야 한다

어떤 기업인은 미래에는 한 명의 천재가 100명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나름대로 국제화 시대의 경제환경을 대변한 말이다. 조직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말이다. 한 명의 천재가 100명을 이끌기 전에, 100명의 인재가 1명의 천재를 살려야 한다. 조직은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조직은 전체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마치 1970년대에 설계된 자동차에 오늘날의 첨단 센서들을 부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센서는 금방 망가지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명의 천재가 매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 들어온다면 그 천재는 그 조직 속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축출되고 말 것이다.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관 성 사

주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 인 사

주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 천 사

주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벽 룡 사

주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총 지 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 화 령

정사 법 경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전수 덕 현

☎ (02)552-1080

실 지 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2)983-1492

정 심 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지 인 사

주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시 법 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서울 경인 교구 일동

지상설법



법 일

〈벽룡사 주교〉

5월10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전에 등불을 공양올리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국가적으로 치러졌던 불교행사로 신라 진흥왕대에 팔관회와 더불어 주로 고려 시대에 성행했으며,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 중에 등공양은 바로 부처님 앞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바르게 하여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각자님, 보살님,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무엇을 빌려합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 처럼 부처님께 해 달라고 빌고 또 빌려합니까?

왜 내가 부처님께 해 줄 생각들은 많고 해 달라고만 하는지요? 내가 해 주고자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임을 잘 알면서도 관세음보살님께 해 달라고만 합니다.

등을 밝히고 향을 피워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틱낫한 스님은 ‘상대방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 분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불자답게, 바르게 행동하며 자비심 깊은 불자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관세음 보살님 처럼 받든다면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것이요, 또한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즘 세태가 얼굴 예쁘고 키 크고, 춤 잘 추면 아이돌 이라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지요? 고현정의 백옥 같은 하얀 피부를 보면서 ‘와 ! 저 나이에 저런 피부를..... 나 도 저런 피부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들 하시죠?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백설기 피부 만들기 비법을 공개하니 배워 익혀 우리도 고현정 같은 피부로 행복해집니다.

먼저 돼지 껍데기를 삶아 믹스기에 곱게 갈고 울무 가루를 조금 넣어 잘 섞은 다음 얼굴에 팩을 합니다. 20여분 정도 지난 후 찬물로 세수하면서 떼어낸다. 그러면 바로 백옥 같은 피부가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백옥 같

은 피부만큼이나 백옥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가꾸어 갈 때 더 행복해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 해지는 비결 중 영양학적인 측면을 보면 고단위 비타민 B 섭취로 행복지표 물질인 세로토닌이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되어 손상된 마음과 세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어 스트레스를 받아 균형을 잃은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행복해 지게 해 준다고 합니다. 요구르트나 땅콩, 참깨, 치즈, 우

는 것을 말합니다.

유식론에서는 타수용신(他受用身)과 변화신(變化身)은 외부의 대상인 중생을 향해 설법 교화하는 몸인 것에 비해, 자수용신(自受用身)은 광대한 법락을 안으로 혼자 받는 것이니, 이 법락은 한없이 즐거우며 영원히 계속하는 것으로 밀교에서는 이 법락을 대일여래가 스스로 그 권속들에게 향하여 자내증(自內證)의 법을 설하는 낙(樂)으로 자기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아

자기 성찰의 즐거움을 갖자

유, 바나나, 등 푸른 생선, 육류 등을 섭취하고 입으로 씹는 연습을 많이 하며, 복근운동 또는 단전호흡, 요가, 햇빛 쬐기, 걷기, 일상 생활을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몸을 움직이기, 등산, 큰소리로 웃기, 수영, 노래 부르기 등을 하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법회시간에 소리 내어 ‘옴마 니반메훔’ 하는 금강(고성)염송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하는 수행이 됨을 알아야 하겠 습니다.

밀교는 대일여래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설법하는 것으로 대비로자나불 스스로 깨달은 세계의 즐거움을 중생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자수법락(自受法樂)이라 하며, 부처님이 자신의 광대한 법의 즐거움을 스스로 받

종조법설집 잠언편을 보면 “법계만유(法界萬有)는 복 지은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달도 필요 없고 산과 강이 모두 장애가 없다. 법계의 하나 진리 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없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다. 오직 복 지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법계의 하나 진리 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없다.” 이것을 법신불이 중생들에게 늘 설법하고 계시는 바로 법락일 것인데 중생 스스로 법신불의 설법인 당체법문을 듣고도, 보고도 모 르체하고 살아가면서 힘들다며 세상은 다 고(苦)라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이것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다. 오직 복

지은 자의 것이다.” 라는 종조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는 그만 행복해지는 길을 가야 하겠 습니다.

계슈탈트 심리치료에 있어 상담자들은 자신의 인생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돕는 일을 함으로 자신을 완전히 자각하게 하여 치유가 되도록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행복과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따라 즐거움의 법락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잘 살펴 보게 해 줍니다.

1천원 회사하고 1억 벌게 해 달라고 기도 하고, 반야심경 쯤 외운다고 설법의 깊이를 논하고, 절에 오랫동안 다닌 경력으로 스승자질을 논하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법락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까?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아 보시고 자기 성찰의 뜻 깊은 회향으로 나의 아름다운 결모습만큼이나 내심의 마음도 아름다운 날이 되어 자수법락의 즐거움을 누리 는 그 길이야 말로 바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하시고자한 설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지혜 있는 보살님, 불자들이 되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성도합시다.

◆ 믿음이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선남자여, 내가 경에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부처님·교법·스님을 비방하니, 하나는 믿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 있는 연고요, 둘은 믿으면서도 뜻을 알지 못하는 연고라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사람이 신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명을 증장하고, 지혜는 있으나 신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사된 소견을 증장을 증장하느니라. 선남자여, 믿지 않은 사람은 성내는 마음 때문에 삼보가 없다고 말하고, 믿는 이가 뒤바뀌게 뜻을 해석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케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성내는 마음이 있는 연고며, 믿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연고로 이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한다 하느니라. 『열반경』

◆ 듣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문수보살이 법수(法首)보살에게 물었다.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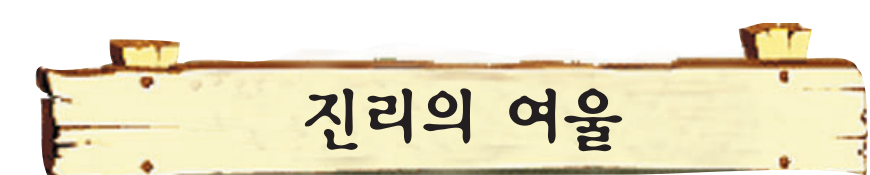
듣는 것만으로는 번뇌를 끊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법을 들으면서도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법수보살이 대답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도(求道)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백 가지 약을 잘 알고 있는 의사도 병에 걸려 낫지 못하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돈을 세어도 자기는 반푼도 차지 할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장님이 그림을 그려 남들에게는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 독사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낮에는 부지런히 착한 법을 닦아



진리의 여울

익히고, 밤중에는 경전을 읽어라. 잠만 잡으려써 나날을 아무 소독 없이 헛되어 보내서는 안 된다. 항상 덧없는 불길 이 온 세상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빨리 자신을 구제할 것이며 부디 깨어 있으라. 모든 번뇌의 독목이 항상 틈을 엿보고 원수처럼 침범하는데 어찌 잠자기만을 일삼아 경계하지 않을 것 인가.

번뇌가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것은 마치 검은 독사가 네 방에서 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갈퀴로써 빨리 물리쳐 없애버려야 한다. 독사가 나간 뒤에라야 마음 놓고 편히 잠들 수 있다. 독사가 나가 지 않았는데 잠자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유교경』

◆ 거울 속의 사람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항상 곤궁해서 남의 빛만 잔뜩 짙어진 채 갚지를 못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쳤다. 도중에 그는 걸이 거울로 덮여 있는 한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기뻐하여 상자를 열려 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웬 사람이 자기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는 놀라서 얼른 함정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 속에 있을 줄은 정말 모르고 그랬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범부들도 그와 같다. 한없는 번뇌의 시달림을 받고 생사의 마왕에게 꾀박

을 당하다가 그것을 피해 바른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 그들은 좋은 법을 닦아 행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으려 한다. 그러나 보물 상자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남으로 착각하는 바보처럼 <나>가 있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낸다. <나>에 집착하여 그것을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락의 길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보물 상자를 버리듯,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공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백유경』

◆ 입을 걸어차다

옛날 부자가 한 사람 있었다. 곁에 사람들은 그의 환심을 사려고 그에게 온갖 아첨을 다 달였다. 심지어 그 부자가 가래침을 뱉으면 그의 시종들은 달려가 그것을 빨아 문지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어떤 미련한 시종 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여 그의 눈에 들고자 했으나 마치 차레가 돌아

오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침을 뱉을 때마다 나보다 낫센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 그것을 빨아 버릴 테니, 나는 그가 침을 뱉으려 할 때 얼른 빨아 버려야겠다.」그 때 마침 부자가 가래침을 뱉으려 했다. 미련한 그 시종은 얼른 발을 들어 부자의 입을 걸어 차버렸다. 부자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부자는 회를 발적 내며 꾸짖었다. “너 이놈, 어찌 감히 내 입을 차느냐?”

어리석은 시종은 대답했다. “만일 주인이르든 침이 입에서 나와 땅에서 떨어지면, 곁에 사람들이 얼른 빨아 버리기 때문에 제게는 차레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먼저 빨으려고 했던 것이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 다.” 어떤 일이든 그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채 이르기 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사람들은 제 때와 제 때 아님을 잘 살펴 알아야 한다. 『백유경』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만 보 사

주교 : 정사 승 원

전수 모원화

☎ (042)255-7919

백 월 사

기로스승 : 사 홍 화

주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법 황 사

주교 : 전수 해안정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 정사 서 령

전 수 해원정

☎ (043)256-3813

홍 국 사

주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충청 전라 교구 일동

세상사는 이야기

엄마! 엄마! 사랑해!

전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책이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읽지 못했다. 요즈음 바쁘다는 핑계로 난 잠들기 전에 고작 몇 장 읽고 자는 것이 내 독서의 전부이다.

지난 4월5일 미국에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책이 출간 되었다. 미국에서 처음 나온 책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였다.

순간 누가 가슴을 힘껏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첫 문장으로 작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다. 너무나 함축된 문장이다. 독자들은 이 한 문장을 보고 각자 나름대로 상상을 하며 엄마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

을 올리는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를 잃어버린 딸들의 마음 이 내게 직접 와 닿는다. 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엄마와 영영 이별한지 여러 해가 지났다. 아직도 그때의 일은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잘 저장 되어 있다. 엄마의 아파하 시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엄마는 딸들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셨다. 건강 할 때 좀더 자주 엄마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마도 이런 아픈 감정을 가진 딸들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항상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 딸들이 아닐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렇게 늘 사용했던 호칭이었지만 예전엔 못 느꼈다.지금은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해지며 마음이 흔들린다. 엄마는 나의 영원한 고향이다.

늘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듯이 우린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엄마에 대한 가슴앓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해진다

으로, 출간 된 첫 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한다.

영어로 번역 된 한국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신경숙에 대한 관심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고 한다.

책 표지는 강렬한 빨강색으로 엄마의 진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작고 약간 구부정하고 초라한 검은 색깔로 표현 된 엄마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 다음 순간 마음의 바다 속 깊은 곳에 가라 앉아 있던 내 엄마가 불쑥 떠올랐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렁이며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있다. 큰 파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내 마음도 부서지는 것처럼 마구 아파 온다. 엄마는 왜 내게 늘 아픔으로 다가 오는 것일까?

책의 첫 번 째 장을 넘겨 본다.

어 나갈 것이다.

책을 한 장씩 읽어감에 따라 비록 삶의 방법은 서로 다를지라도 엄마로 산다는 것은 다 같은 삶인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 평생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엄마들의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 엄마들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그들은 오직 가족을 위해 불평 없이 늘 보이지도 않는 일을 묵묵히 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들을 알았다.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의 한평생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에 대한 감정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것은 엄마를 소재로 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심해지고 있다. 요즈음 문상을 가거나 49재에 참석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려고 한다. 내가 많이 약해 진 것이 아닌 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곳에서 엄마 생각이 자주 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 앉는다.

세월이 흐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희미하게 퇴색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평소에는 마음 속 깊은 바다에 조용히 가라 앉아 있다가 때때로 수면위로 떠올라 내 가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엄마를 불러 본 것이 언제인가?

나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 보고 싶다. 내 엄마와 세상의 모든 엄마를 향해 엄마!

엄마! 사랑해!

-박요정-

불교설화 <55>

부처님 오신날 연등은 왜 달까

◇연등(燃燈)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無明)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힌다는 뜻이다. 무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처럼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토록 하지는 것이다.

◇연등의 의미

연등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 홍미로운 설화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현유경(賢愚經)>의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을 보면 ‘난타’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가난하여 결식하며 살던 그녀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에 구걸을 해 기름을 사서 올렸다. 밤이 지나며 다른 등불은 꺼졌지만 난타가 공양한 등불만이 홀로 불을 밝혔다. 날이 밝자 부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불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가 나타나 “어떤 물과 바람으로도 끌 수 없다”며 “그것은 모든 중생을 견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 나타난다. <화엄경>에는 “mind을 심지 삼고, 자비를 기름 삼으면 공덕이 빛을 발해 삼독을 없앤다.”고 하여 등을 다는 의미를 설명했고, <열반경>에는 열반에 드는 부처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진리를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답변을 했다.

범어로 디파(di-pa)로 불리는 연등은 지혜를 뜻한다.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무명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어둠을 환히 밝히듯 사람이 가진 무명(無明)을 깨치는 작업인 것이다.

◇언제부터 연등을 달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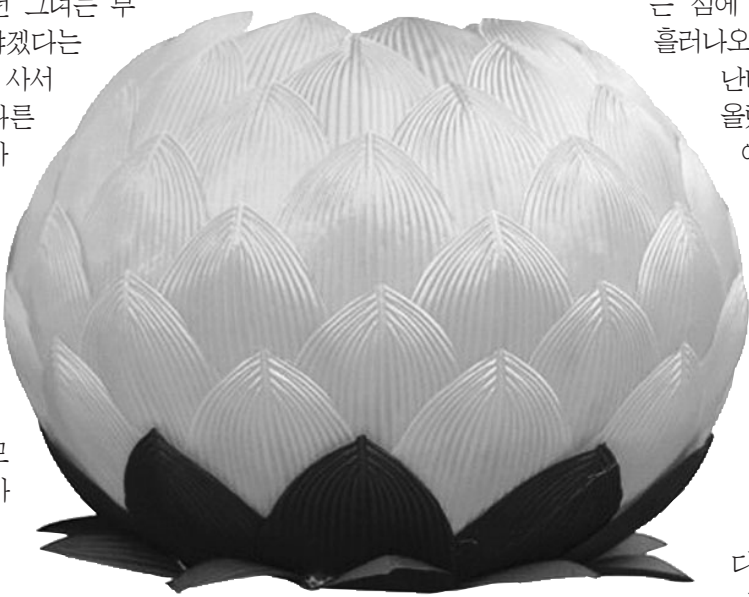
연등행사는 신라시대 국가발전을 기원했던 연등회 행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로 들어와선 국가적인 차원의 성대한 불교의식

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현재 사월 초파일에 연등하는 풍습은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의 아들인 최이(崔怡)가 초파일일 석가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연등행사를 이날로 정했다고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초파일 연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날만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을 정도로 사월연등이 민간에 깊이 뿌리박힌 행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연등축제와 대량생산의 시대

울해도 각 지역별로 연등축제 행사가 치러진다. 전국적으로 ‘부처님의 자비로 세상에 평안을’이란 주제로 치러진 지역별 축제의 형식은 큰 차이가 없다. 식전 축하공연 후 봉축법요식이 이어지고 제등행렬로 물비춤(스포트라이트의 우리말)을 맞는다. 불교연합회



하나 새롭게 배우면서 연꽃을 만들고 창조지에 풀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스님과 신도들이 둘러앉아 등을 만들기도 하고 숙련된 몇몇 신도들이 연등 만들기 ‘보시’를 하기도 하지만 암자 등 신도가 많지 않은 사찰의 경우, 공장에 의뢰해 짝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초파일일 가까워지면 불교용품점이 더욱 붐빈다.

등의 연료도 예전에는 등·식물의 액체나 고체 기름을 사용하다 지금은 전기로 불을 밝힌다. 연등이 절뿐 아니라 길가에까지 밀려들어오면서 등불 관리가 어려워지자 등불이 꺼지는 것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아무리 대량생산의 힘을 빌리지만 성탄일에 접하는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플라스틱 연등을 제작해 다는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점점 흘러나오고 있다.

난타여인이 빈궁해서 공양으로 올렸다는 작은 등불, 약한 바람에도 꺼질 듯한 미약함에도 끊임없이 베를 수 있는 등불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석탄일을 맞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다가오는 사월 초파일엔 절에 걸려있는 연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등의 종류

등은 쓰임새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등은 연잎모양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연화등이다. 이외에도 팔각등·주름등·종등·장등이 있다.

또 무병장수를 위한 거북·학등, 입신양명을 위한 잉어등, 다산을 기원하는 석류등, 밤낮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수면에 정진하라며 나온 목어등처럼 여러 동물들의 형태를 띤 등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흰색 주름등은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 때 주로 쓰인다. 이외에도 특이하게 1980년대 자판기 등장과 함께 종이컵이 나오면서 종이컵등도 나왔다.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이 계기였지만 연잎도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고 값싼 외양이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등은 그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담고 있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다.

-심일화-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전화사

주교 :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4)761-2466

개천사

주교 :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국광사

주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단음사

주교 :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립사

기로스승 보 원
주교 :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수계사

주교 : 전수 안주화
☎ (054)745-5207

수인사

주교 : 정사 지 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기로스승 지선행
☎ (054)746-7434

제석사

주교 : 전수 행원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 경북 교구 일동

날마다 좋은날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 경 인 성화사



천수경을 매일같이 읽지만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따라 읽기만 했었다. 반야심경도 그저 또 따라만 읽는다. 양손을 폈다 곱았다 할만큼의 헛수로 절에 다녔건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읽기만 했다.

월초 법문시간, 무엇이든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고 하셨다.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참피스러워 천수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지 못했다. 정사님께서 복사를 해서 교재를 일일이 만들어 가르쳐 주셨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반야선

관세음보살님 ... 원하옵건대,

모든 불법(진리)을 빨리 알고자 하옵니다.
지혜의 눈을 어서 빨리 얻고자 하

옵니다.

모든 중생을 어서 빨리 제도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편을 어서 빨리 얻고자 하옵니다.

피안의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 지혜의 배를 빨리 타게 해 주십시오.
천수경의 16가지의 아주 크나큰 구

원을 청하는 경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얼굴이 붉어진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저 좋은 경이라고 따라 읽기만 했다.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청하는 행동을 하였나, 앞으로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는 경을 읽을 때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머리

가 절로 숙여진다.

정사님께서 성화사에 계실 동안 교재를 일일이 복사해서 한문 하나하나 음과 뜻을 풀이 해 주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던 모습 지금도 선하다.

그 깊은 열정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고, 성화사 보살님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다.

정사님, 법문시간에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였고, 온갖 교재를 준비하셔서 바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염려해주시고 말씀은 없으시지만 몸소 실천으로 행하시는, 바깥으로 풍기는 파스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일선에 계시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로 푸근함과 파사롭게 안아주시는 스승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인자하고 파스한 모습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이야기

枯木앞에 서...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작은 씨앗 하나가
바람에 날라와
혼자 힘으로
땅 거죽을 뚫고
움을 틔워
천년을 살으니

이제는
가느다
오느이
작은 돌 하나씩 올려 놓고
소원을 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을날 아낌없이 다 떨구어
날잠승 들짐승
먹이로 내주고
비바람 막아주는
안식처 되었다

다시
천년이 지난 후
어느 누가
기억이나 할까~~

일송정(진언 행자 카페에서)



이달의 추천도서

스님은 사춘기

저자 명진 스님 | 출판사 이슬



이 책은 명진 스님이 봉은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일요 법회 때마다 신도들에게 법문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40년 동안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어 온 명진 스님. 스님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 버리기 연습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역자 유윤한 옮김 | 출판사 21세기북스

일본 쓰키요미치 주지 스님으로 일 반인을 위한 좌선 지도를 해온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 버리기 연습』.



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풍조를 뒤엎을 '휴뇌법'을 공개한다. '생각 버리기 연습'을 통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잡념의 정체를 밝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말하기'부터 '기르기'까지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특히 생각하지 않고 오감으로 느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도록 이끌고 있다. 뇌를 쉬게 할 뿐 아니라, 충전하여 날카로움과 명철함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반야심경』

저자 현봉스님 | 출판사 불광출판사

불교의례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독송되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이다. 어떤 이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반야심경』을 아침저녁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한다. 경전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작은 종이에 인쇄해서 늘 몸 가까이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대승불교와 가장 가까운 경전, 그리고 늘 가까이 하는 경전이지만 『반야심경』의 뜻을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반야심경』 260자의 짧은 구절 속에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공(空)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공(空) 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재해석한 것으로 이로부터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이 시작된 대승의 출발점이자 대승의 핵심이다. 공 사상이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어 수많은 대승불교의 사상과 경전이 꽃을 피웠다.

= 주간 베스트 셀러(4월4주) =

1.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쌤앤파커스)
2. 암마를 부탁해(신경숙, 창비)
3. 생각 버리기 연습(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4. 백설공주에게 죽음을(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5.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이해인, 쌤터사)
6. 바보 빅터(호아킴 데 포사다와, 한국경제신문)
7. 4001사건 전후(신정아, 사월의책)
8. 화내지 않는 연습(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9.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김영사)
10. 빌딩부자들(성선화, 다산북스)
11.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들베개)
12. 고구려 3(김진명, 새움)
13.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1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고도원, 홍익출판사)
15. 실형이 답이다(이민규, 더난출판)
16. 고구려 1(김진명, 새움)
17. 아가미(구병모, 자음파모음)
18. 7년의 밤(정유정, 은행나무)
19. 해커스 토익 보카(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20. 내 아이를 위한 감성코칭(조벽 최성에 존 카트맨, 한국경제신문)

한국출판인회의(교보문고 영풍문고 만디앤루이스 대교리브로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부산 영광도서 대전 계통문고) 집계



생활상식

◀ 식중독 예방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사항)

1.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세요.
2. 음식물은 섭씨 70 도 이상으로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해야 합니다.
4.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보관 해주세요. 나들이 시에 휴대용 아이스박스에 음식물을 보관할 경우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5.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다시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상식

만다라(曼荼羅)

'만다라'란 말은 범어 'Mandala'의 음사입니다. '만다'는 범어로 'Manda'인데 본질,성질의 뜻이고, '라'는 범어 'la'이며 성취,소유의 뜻입니다.이러한 합성어의 역어는 여러가지 입니다. 윤원구족·취집·도량(道場)·단(壇)입니다.

그 뜻을 종합해보면 만다라라는 것은 불타의 윤원구족(輪圓具足)한 깨달음의 경계를중심관념으로 한 제존집회의 도량, 공덕취의 단, 내 증세계인 법계공과 그 장엄세계의 도회 등 삼밀무진장엄장의 밀교세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정각사

주교: 정사 대원
전수 정인화
전수 정원

☎ (051)552-7901

관음사

주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성화사

주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단향사

주교: 정사 경원
☎ (055)644-5375

실보사

기로스승: 해정
주교: 전수 정법계
☎ (052)244-7760

덕화사

주교: 정사 법등
전수 인덕심
☎ (051)332-8903

운천사

주교: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55)223-2021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법성사

주교: 전수 묘홍
☎ (051)468-7164

자석사

주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삼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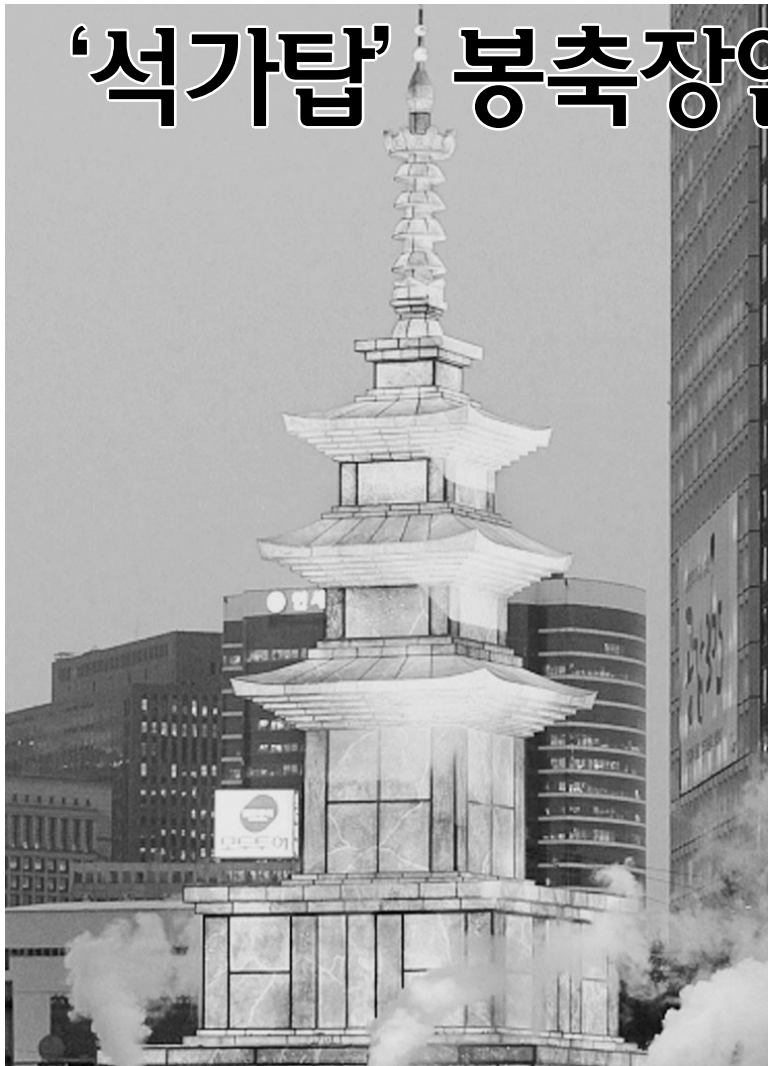
주교: 정사 원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화음사

주교: 정사 수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부산 경남 교구 일동

‘석가탑’ 봉축장엄등 불을 밝히다



봉축위원회는 4월 26일 서울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서울시장등 정치인을 배제하고 각 종단의 대표와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순수한 불교행사로 진행됐다. 국보 21호 불국사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좌대 포함 높이 18m크기의 전통 한지로 제작되었으며

전구식 형공램프 3백여개를 사용했다. 석가탑등은 지난 2010년 12월 3일 동측 상단기단 갑석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석가탑을 상징물

로 세워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석가탑등은 부처님오신 날인 오는 5월 10일까지 켜진다.

봉축위 행사탈피 ‘자비행’ 추진 부처님 가르침 전파에 주력

봉축연등축제가 행사위주에서 탈피해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비행 운동으로 탈바꿈 되고 있어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조계종 봉축행사와 관련 이벤트 중심의 일회성 행사에 치중해 부처님오신 참뜻을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상희 조계종 행사기획단 팀장은 “현 집행부 출범 후 형식적인 행사 위주에서 탈피해 봉축행사의 근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자비의 손길’ 행사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무원에서는 자비행 실천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 행사기획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란 봉축 포어에서 볼 수 있듯 봉축기간 동안 ‘자비 손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108배 모금운동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천배 정진기도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함께 5월 8일 조계사에서 ‘MBC 무소유- 나눔 비움’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진기 65년 춘기스승강공 봉행



▲ 진각종 스승들의 춘기강공모습.

진각종은 4월 21, 22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육자관의 실수’를 주제로 도흔 총인예하를 비롯해 통일원장 혜정 정사와 전국의 정사, 전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기 65년 춘기스승강공을 봉행했다. 도흔 총인예하는 법어에서 “육자관의 실수는 신구의를 삼밀로 상응일치 하게 되어 즉신성불이 된다”면서 “진실한 수행

법은 육자의 관행을 신구의의 삼밀로 상응일치 하게 하여서 즉신성불 하고 현세정화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공의 주제토론은 주제강론(교육원장 경정 정사), 교법강론,육자관법 실수 정진, 서원가 배우기, 종조범어합송, 종정보고, 진각문화전승원 입주원만불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회향했다.

올해 불자대상에 이수근·김혜옥 등 6명

5월10일 봉축법회서 시상



▲ 불자대상을 받은 김혜옥, 방귀희, 이기흥, 이수근, 김상기, 故 양드레킴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자승스님)는 4월 18일 ‘불기 2555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배우 김혜옥, 숭례문화발행인 방귀희,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이기흥, 방송인 이수근,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패션디자이너 故양드레킴을 선정했다. 김혜옥 불자는 불교방송 ‘아

름다운 초대’ 메인 MC로 6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늘 정진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불법홍포에 앞장서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방귀희 불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불자 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유일 장애인 문예지 <숭대문학>

을 20년간 발행하여 장애인 문학의 지평을 열었다. 이기흥 불자는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 법당을 개원하는 등 불자 체육인들의 신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수근 불자는 젊고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조계종 신도증 모델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 신행활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상기 불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군인의 책무를 다하며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군 포교활동을 선도했다. 故양드레킴 불자는 생전에 한국 패션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로 존경받았으며 자신의 작품에 불상을 그려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조용하지만 심지 굵은 불자로 활동하였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갈등 불교적 관점에서 풀자 가족 상담 지도자 교육



▲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이 ‘가족상담 지도자교육’을 연수 받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스님)와 함께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은 인사말씀에서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연가적 관계에 있다”며 “불교는 사회 통합의 종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신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족 내 여러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하여 가족상담 제반에 관한 교육과정이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적 교육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기법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고문정 상담심리전문강사(숙명여대 강사)는 ‘가족상담의 주요 이론과 실제’에 대해 총 6시간의 긴 강의를 둘러싼 이론과 기법, 사례, 다양한 접근 방법 등을 소개했다. 고 박사는 일선에서 오래 활동한 상담심리전문가답게 비구니스님들이 직접적으로 내담 가족과 만났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주목받았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5~6월에는 ‘태교전문가’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을 모시고 ‘불교TV 특별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번 교육을 받은 비구니스님들의 사찰들을 중심으로 법문을 통해 가족과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전파하는 ‘사찰가족법회’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서 통일신라 금동불상 7점 출토

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하기로 한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445번지 일원에서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고려시대 중·후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절터와 함께 금동불상, 명문기와 등이 대거 출토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영남문화재연구원(원장 이희준)은 4월 21일 “국군체육부대의 이전 장소에서 절터의 적심(積心) 건물터 9동, 축대시설 6기, 부속 시설 8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동불상 7점과 ‘광림사부’(廣林寺付)라는 글자가 적힌 명문기와 등도 함께 출토됐다.

이번에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절터는 조선시대 지도나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오정사(烏井寺)터로 추정된다. 금동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8cm에 이른다. 전형적인 8세기 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동여래입상 4점과 금동보살입상 1점은 부식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나머지 2점은 훼손이 심해 형태를 추정하기 힘든 상태다. 이들 불상은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 등으로 정교하게 제작돼 한국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서울경인교구

지회장 김은숙

수석부회장 보덕제, 노진숙

총무 이인성, 이연수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신인록

총무 정남선

대구경북교구

지회장 김수자

총무 이양숙

충청전라교구

지회장 민순분

총무 이민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 총지중 신정회 일동

김은숙 회장, 서울·경인지회장에 재추대 수석부회장 보덕제, 노진숙 교도



서울·경인 지회는 4월 13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새로 임명된 임원은 회장단과 총무 인안성 교도(총지사), 이연수 교도(일인사), 감사 이타심 교도(관성사), 이형자 교도(지인사)가 맡게 되었다. 김은숙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승속이 화합하여 화목하는 분위기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으로 정기회의는 분기별 월초 다음주 수요일에 열기로 하였다.

밀인사 교도, 소양호에서 방생법회



밀인사(주교 원당정사)는 4월 11일 원당 정사와 묘심해 전수가 교도들과 함께 춘천 소양호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방생을 마친 후 소양강 댐에서 강 줄기를 따라 배를 탄 후 청평사 관불을 하였다. 이어 도립화목원에 들러 봄의 향기를 맡았다.

장례및 천도불공 관련 교도 간담회



지난 4월 8일, 충지사(주교 선도원 전수)에서 상반기 49일 불공을 마치고 충지사 신정회장 김은숙(만덕장 보살)회장과 이인성 부회장, 정인숙 부회장, 박정희 부회장, 최해선 총무 등 간부 교도들이 모여 종단의 장례불공과 49재 천도불공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교도들은 법구사용과 차공양, 의식의 통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4월 8일, 충지사(주교 선도원 전수)에서 상반기 49일 불공을 마치고 충지사 신정회장 김은숙(만덕장 보살)회장과 이인성 부회장, 정인숙 부회장, 박정희 부회장, 최해선 총무 등 간부 교도들이 모여 종단의 장례불공과 49재 천도불공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교도들은 법구사용과 차공양, 의식의 통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회의 전주 흥국사에서 열려



흥국사(주교 지정정사)에서 4월 15일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합동회의가 있었다. 이날 충청·전라교구(교구장 법무 정사) 스승들과 충지화 기로스승과 사홍화 기로스승도 참석했다.

교구 민순보지회장과 이민자 총무와 간부 교도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청와대관람 한 벽룡사 교도



벽룡사(주교 법일정사)교도와 사원 내 산악회각자회원들이 법일정사와 자행정전수와 함께 4월 26일 청와대를 탐방하였다. 160년된 소나무가 펼쳐있는 청와대 녹지원과 상춘재, 영빈관을 구경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있는 세종실을 배경으로 하였다.

남해 섬들을 안은 만보사 교도

49일 상반기 불공 후 만보사(주교 승원정사)교도 30여명이 스승과 함께 경남 통영을 다녀왔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기념관과 돌려보고 묘소를 참배했다. 달아공원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만끽했다. 미래사가 있는 마복산을 오르며 편백나무 숲길을 지나 산 정상에서 남해섬들을 품안에 넣었다. 수산국립공원과 박물관을 관람하였으며, 명계양식장에서 생태 현장을 보았다.

알림방

- ▶5월 2일~8일 5월초불공
- ▶5월 7일 연등축제
- ▶5월 10일 석가탄신일
- ▶5월 28일~7월15일 하반기 49일 불공
- ▶5월 30일 6월초불공

충지동의보감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세균이 감염되어 나타나는 염증상태를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변불리(小便不利)또는 소변삼통(小便澀痛)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게 됩니다. 방광염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며 배뇨시 통증을 느끼며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이후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방광염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생식기구조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요도의 길이가 짧고 요도와 질, 항문 등의 위치가 앞뒤로 이어져 성생활, 질염, 대소변, 생리를 통해서 이완된 염증균이나 노폐물 등이 감염을 유발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방광염은 전체 여성인구중 50-60%정도가 한 두 번쯤 겪게 되는 증상이며 질염과 더불어 재발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질염과 더불어 요로계의 감기에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즉 감기의 경우도 물론 감기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발병 당시의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저항력,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되어 주로 같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생활을 할 경우라도 저항력이나 면역성이 저하되기

방광염

쉬운 어린이, 노인, 체력이 약한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 등에서 쉽게 발병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광염이나 질염의 경우도 물론 급성일 경우라면 발병원인을 찾아 항균소염작용의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해 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광염이 치료후에도 자주 재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자궁을 비롯한 주변생식기능의 저하와 자궁골반주변의 혈액순환장애상황 등을 개선해가기 위한 치료와 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광염의 한방치료원리입니다.

이에 주로 한방에서는 만성방광염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게 됩니다. 주로 방광을 비롯해 자궁 및 주변생식기능을 보강하고 울체된 기혈의 순환을 도와 어혈 및 담음 등의 노폐물을 풀어 자궁골반주변의 혈류순환을 돕게됩니다.

이 외에 가정에서 방광염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생활요법으로는 ①평소 수분섭취를 많이 한다. 특히 방광염발생 시에는 수분섭취를 통해서 소변을 자주보므로 염증균배출을 도와준다. ②규칙적인 배뇨습관을 기르고 가능한 소변을 오래참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타이트한 속옷이나, 껌 끼는 청바지, 코르셋 등 자궁골반순환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의복의 착용은 피한다. ④자궁과 방광 등 생식기가 위치한 하복부의 혈류순환을 돕기 위해 반신욕이나 좌훈, 찜질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⑤가능한 생리전후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생리기간중의 성생활을 삼간다. ⑥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며 마음의 안정을 통해 신체저항력이나 면역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한다.

나그네

외로움과 고독의 길
나는 나아간다.
어디인지 모를 어딘가를 향해서…….
절망과 슬픔의 길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원하는 어딘가를 향해서…….
괴로움과 낙담의 길
나는 당당하게 나아간다.
내가 목표하는 어딘가를 향해서.



박정훈
〈동해중 3학년〉



충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 강
이사 법 공
이사 대 원
이사 선도원
이사 인 선
이사 강경중

이사 김무남
이사 정영문
감사 수 현
감사 법 우
감사 박정선

교장 장재계
교감 탁상달
행정실장 석동훈

〈교직원 및 행정직원 일동〉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불교의 선정 ②

지관쌍운(止觀雙運) - 가장 이상적인 선정



화 령

(중앙교육원장 / 철학박사)

불교의 선정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함으로써 바른 지혜를 얻어서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러나 불교 이외의 많은 외도들은 이러한 근본목적에서 벗어나 선정에 대해 매우 신비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깊은 명상에 잠김으로써 자기가 믿는 신과의 소통을 한다는가 아니면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른바 초능력을 얻으려고 한다는지 혹은 어떤 신비한 경지에 몰입됨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선정에 취해 있을 때는 세상만사를 다 잊고 신선경에 노는 듯하지만 깨고 나면 염연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선정이나 명상을 통하여 설혹 공중부양 같은 것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인가? 비행기를 타면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명상에 들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도취하고 착각일 따름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선정의 바른 목적과 선정이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 지(止)는 마음을 집중시켜 고요하게 하는 것
관(觀)은 지혜를 가지고 대상을 관찰.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가? 불교에서는 이른바 지관균등(止觀均等)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지관균등의 선정에 의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가장 잘 얻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선정에는 지(止)와 관(觀)이라는 것이 있다. 지의 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정의 종류 가운데에서 사마타(samatta)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하게 가지는 것이다. 즉,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한 곳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여기에 대

하여, 관의 정이라는 것은 위빠사나(vipasyana)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를 가지고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의 정에 의해서 고요해진 마음으로 대상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것이 관의 정이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것을 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에 의해서 고요해진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지는 번뇌를 차단하는 것과 같고, 관은 번뇌를 끊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지는 잡초를 움켜쥐는 것과 같고, 관은 그렇게 움켜 쥐 잡초를 낫으로 베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지와 관을 균등하게 사용하여 지혜를 자아내고 번뇌를 끊는 것을 지관쌍운(止觀雙運)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지관균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이 지관균등의 상태에서 얻어질 수가 있다.

선정에서 지의 상태가 너무 깊어지면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하여 기절상태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관의 상태가 너무 깊어지면 마음이 이것저것을 살핀다고 산란해 지기 때문에 이 또한 바른 지혜를 얻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지관균등의 선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관균등의 이상적인 선정을 색계의 사선정에 두고 있다. 즉, 색계 초선정에서 제이선, 제삼선, 제사선정의 네 단계의 선정을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제사선이 가장 뛰어난 지관균등의 선정으로 보고 있다.

◆ 아난다라삼막삼보리는 더할 나위 없는 높은 깨달음이다

이 사선정을 사정려(四靜慮)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뫼드라의 결을 떠나 독자적으로 개척한 선정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실 때에도 사선정 가운데의 제사선(第四禪)의 상태에서 아난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anuttara samyak-sambodhi)를 얻으시고 또 육신통을 구비하셨다고 한다. 아난다라삼막삼보리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말한다. 즉,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깨달음이다. 그리고 입멸하실 때에도 제사선에 머물러 입멸하셨다고 한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뫼드라는 선정으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지에 치우친 선정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와 관의 정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은 단계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의 정은 무색계의 정에 속하고 관의 정은 색계의 정에 속하기 때문에 지의 정이 더 깊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낮은 단계에서 점차 깊은 단계의 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관의 정에서 지의 정으로 옮겨간다고 할 수 있다.

욕망으로 덮여 있던 욕계의 우리의 마음이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욕망을 배제한 색계의 사선정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깊어지면 무색계의 정에 들 수 있다. 무색계의 정에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의 네 단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정에 해당된다. 멸진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멸하고 마음이 완전히 정지하여 소멸해버린 상태와 같은 참된 무념무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 선정 추구는 현실생활의 지혜에 의해 고(苦)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이와 같이 선정의 깊이에 따라 색계 사선과 무색계의 네 가지 단계, 그리고 멸진정을 포함하여 아홉 단계의 선정을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고 한다. 아라한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는 구차제정의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선정의 깊이를 더 해 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반하여, 보살 이상의 경지는 어떤 경지의 정이든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의 단계에서 가장 깊은 단계의 멸진정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역시 지관균등의 색계 사선정이 지혜를 드러내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이 깊어져 지의 폭이 강하게 되면 마음의 작용이 거의 멈추어 그 자체로는 나무나 돌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지혜에 의하여 고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관균등, 지관쌍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처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색계사선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팔정도의 정정도 바로 이 색계사선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선정이 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모든 선정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정(根本定)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사선정은 지관균등을 이루어 지혜를 밝히는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사선정에는 어떤 단계가 있으며, 그 경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초선(初禪)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전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초선에서는 모든 욕구를 떠나고, 모든 불선법을 떠나며, 심(尋)이 있고 사(伺)가 있으며, 오개(五蓋)를 벗어나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욕구를 떠난다는 것은 감관의 욕구를 떠난다는 것이다. 감관의 욕구란 우리가 눈·귀·코·혀·몸으로 느끼는 오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감관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바른 선정이 얻어질 수가 없다.

◆ 불선법을 떠난다는 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감관의 욕구이다. 눈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혀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며, 몸으로는 편안함을 느끼려고 한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며 구하지 못해 안달한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이 생겨난다. 초선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불선법을 떠난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의 불선과 번뇌를 떠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심이 있고 사가 있다고 했는데, 심과 사는 모두 사유작용을 말한다. 심은 뚜렷한 생각이고, 사는 미세한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다.

초선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라앉고 통일되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아직 생각하는 작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오관의 욕구에 이끌리고 집착하는 것은 없지만, 오관의 작용은 계속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감관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미·촉 등의 색법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아직 남아 있는 단계가 색계 초선이다. 그래서 초선의 단계에서는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사유작용이 존재한다.

오개를 벗어나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정신통일을 방해하는 오개의 번뇌를 떠나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한다. 오개라는 것은 욕탐, 진에, 혼침수면(?沈睡

眠), 도거악작(掉舉惡作), 의(疑)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욕탐이라는 것은 감관의 욕구에 대한 것으로서 눈·귀·코·혀·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이다.

진에는 화를 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색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욕계에만 있는 마음 작용이다.

혼침수면은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거나 잠드는 것으로서, 이런 상태에서는 바른 의식과 바른 자제가 갖추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신통일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 오개를 단멸해야 올바른 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도거악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서 산란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마음이 제대로 집중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의라는 것은 선악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과를 의심하며 연기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도 바른 정신집중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오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번뇌이다.

올바른 정에 들기 위해서는 이 오개를 단멸해야 한다.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러한 번뇌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것을 단멸해야 바른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초선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오개가 단멸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초선에서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는 번뇌가 진압되기 때문에 초선 가운데에서는 오개의 번뇌를 벗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편안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선에 들게 되면 심신 모두가 어떠한 근심걱정도 없이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처럼 초선에서는 감관에 대한 욕구는 없으나 거기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어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집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심(尋), 사(伺), 회(喜), 낙(樂), 심일경성(心一境性)의 오지(五支)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의 색계초선에 드는 것은 불교 이외의 다른 외도들에게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초선에 익숙해지게 되면 제이선(第二禪)으로 나아가게 된다.

새움디자인은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조직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영역까지의 확장이기에,

장식적인 접근보다는 철저한 기능위주의 관정을 거쳐

그 공간이 지녀야 할 표정을 부여하는

“감성적 모더니즘”을 추구합니다.



SAE UM DESIGN
ARCHITECTURE / INTERIORS

중합건축사사무소 새움디자인
새움디자인 인테리어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특집기획②

‘불교 4대 성지’를 가다

일체 존재의 이치를 깨닫다 - 성도지(成道地) 『붓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뒤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총지중 스승님과 교도보살들이 참배불공을 올리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 ‘붓다가야’이다. 이 붓다가야는 우르빌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다. 2600여 년전 고타마 싯달타 태자가 카필라성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출가한후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곳으로 알려져 있는 성도지이다. 왕자의 신분 버리고 수행자가 된 싯달타 태자는 여러 스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붓다가야’의 동쪽에 위치한 고행림(苦行林)이었다. 고행림은 원래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알려진 곳으로 그 당시에는 약 2만여명의 수행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경전에 의하면 고타마 싯달타는 카필라성 바깥으로 나와서 성의 주위를 흐르고 있는 아노마강을 건너 아누피야 숲속에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때 옆을 지나던 사냥꾼이 노란 가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라나시산 싯크로 만든 옷과 바퀴 입은 후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사냥꾼이 노란 가사를 입고 사냥을 하는 이유는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사냥을 하면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옷을 갈아 입은 싯달타 태자는 먼 길을 걸어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베살리(바이살리)에 도착한다. 여기서 알라라 칼라마 선인을 만나고 무소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라즈기르(왕사성)의 옷다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선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많은 스승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태자는 그때 당시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이곳 가야로 오게 된다. 원래는 ‘가야’라고 불리었는데 싯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붓다가야’라고 이름 붙여졌다.

고행림에 자리 앉은 싯달타는 고행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음식을 하루 한끼를 먹었으나 얼마 지나서는 하루에 쌀 한톨과 깨 한톨만을 먹고 오직 명상에만 집중하였다. 지독한 고행을 하기를 6년, 몸은 말라가서 손으로 배를 만지면 뚱뚱이 만져지고 눈은 해골처럼 들어가서 뺨에는 가죽만 남았다고 한다. 오로지 명상만을 하며 스



▲ 마하보디사원 안에 모셔진 본존불. 살이계신 부처님께 하듯 실제로 금가사를 입힌다.

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싯달타를 보면서 다른 수행자들은 놀라워 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러듯 혹독한 고행을 하고 있는 싯달타의 건강을 염려한 천신들이 명상에 잠겨 있던 싯달타의 눈 앞에 선녀들을 내려보내 이런 노래를 들려주었다. “기타의 줄을 너무 팽팽히 조이지 말라. 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그 줄은 끊어질지 모른다. 그렇다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말라. 너무 느슨하면 노래소리는 울리지 않을 것이다”

싯달타는 그 선녀들의 노래에서 중도의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즉,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행을 하는 것만이 전부 아니고, 편안함과 고행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싯달타 태자는 지나친 고행과 단식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

하고 싯달타에게 유미죽을 공양하게 된다. 이후로 날마다 수자타의 공양을 받은 싯달타의 몸에는 힘이 생겨났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 보던 다섯 도반 수행자들(오비구)은 ‘싯달타는 타락했다. 이제 우리는 더러워진 수행자와 함께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떠나 버리고 말았다. 도반들이 떠나가자 싯달타의 마음에서는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에 고행림에서 내려다 보이는 네라자라강 기슭에 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싯달타는 그 산에 올라 그냥 열반해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싯달타가 그 산에 오르자마자 산은 아주 크게 흔들렸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년간 닦아온 공덕을 산에서 사는 신들이 안타까워 하며 수많은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룬 곳에서 성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산의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용(龍)은 자신의 동굴 안에서 싯달타가 성도하기를 원하였으나 싯달타는 그 용왕이 사는 동굴 안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래서 이 동굴의 이름을 유영굴(有影窟)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림자가 있는 동굴이란 뜻이다. 지금은 이 동굴에 티벳사원이 들어서 있다. 이 산의 이름은 전정각산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동굴을 떠난 싯달타는 피팔나무 그늘 아래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싯달타는 그 이전의 부처님들은 어떤 자리를 깔고 앉으셨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때 이곳에 살고 있는 길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싯달타에게 쿠사라는 풀을 드렸으며 그 풀을 자리에 깔고 앉으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굳은 약속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의 몸이 없어져도 좋다.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 누구도 얻기 어려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서하였다. 음력 2월 7일 저녁, 환한 달이 비추고 악마의 모든 유혹도 없어진 시간. 육체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싯달타는 깊은 선정에 들었다.

첫 번째 선정에서는 욕심과 악을 버리셨으며, 두 번째 선정에서는 잡념을 버렸고, 세 번째는 바르게 생각하는 즐거움을, 네 번째는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어떠한 번뇌도 없는 편안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싯달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고통받고 변화하는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밤은 더욱 깊었다. 싯달타는 지혜의 눈으로 생사의 근원을 헤아리기 시작하여 성스러운 네 가지의 진리(四聖諦)를 알 수 있었다. 인간의 삶이란 고(苦)라는 사실과 그 고통의 원인은 집(集)이며, 이러한 고통을 없애는, 즉 멸(滅)은 바로 도(道)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도(道)에 이르는 바른 길은 바로 여덟가지의 길(八正道)에 있음을 간파하였다.

싯달타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무엇으로 인해 늙고 죽음이 있는가?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 태어남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세 가지 존재란 육계?색계?무색계라는 삼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근거는 바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집착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무명(無明)이다. 이렇게 싯달타는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근본을 간파하였으니 바로 인연소생(因緣所生)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이란 것

이 결국 열 두가지의 인연을 거쳐 생겨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십이인연(十二因緣), 십이연기(十二緣起)이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다. 이때가 음력 2월 8일, 동쪽하늘에 새벽이 떠오르고 있을 때, 싯달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진리를 깨달음 사람’이라는 뜻의 붓다(Buddha), 부처가 되었다. 순간 싯달타의 얼굴에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법열(法悅)이 피어올랐고 그 기나긴 구도의 길은 마침내 끝이 났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뒤 이렇게 외치셨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의 길을 밟지 않을 것이니 이것으로 번뇌의 마지막이 될 것이로다!!!” 깨달음을 통하여 완전한 해탈, 영원한 열반에 드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유적

1) 마하보디 사원

이 사원은 지금으로부터 2260여 년전인 기원전 250년, 아쇼카왕에 의해 금강좌(金剛座) 위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4개의 돌기둥 위에 지붕만을 얹어 간단하게 지어진 사원이었다. 그러다가 서기 5세기경에 와서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금강좌는 현재 사원 안에 모셔져 있다. 그러나 보리수 바로 아래에 철망을 치고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금강좌는 사원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원 안에 모셔져 있는 금강좌는 사방 15미터의 기단 위에 52미터의 높이로 세워져 있다. 사원 동쪽에는 중각이 세워져 있고, 사원 입구의



▲ 이른 새벽부터 많은 불자들이 마하보디사원에 와서 기도를 올린다.

좌우에는 관자재보살과 미륵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사원 안에는 오른손을 땅을 향해 짚고 있는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본존불은 1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형상은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려 하실 때 스스로의 인내력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손으로 땅을 가리키자 땅에서 지진(地動)이 나와 그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2) 보리수

보리수는 원래 피팔나무라고 불렸으나 부처님께서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깨달음의 나무’, 즉 ‘보리수(菩提樹)’로 불리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싯달타가 룸비니에서 태어나실 때 이 자리에 솟아 올랐다고 하며 해마다 여래의 열반일이 되면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나뭇잎이 피어난다고 한다.

현재의 나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당시의 것이 아니고, 원래의 보리수 나무의 손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고자 팔인 상가미타 공주로 하여금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에 어린 묘목을 심도록 하여 무성하게 자란 나무의 어린 묘목을 다시 가져와서 자란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역수입된 것이다. 현재의 보리수 나무는 약 27미터에 이른다.

3) 금강좌(金剛座)

원래의 금강좌는 마하보디사원 안에 있고 사원 뒤에 만들어진 지금의 금강좌는 5세기경 굤타왕조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진다. 싯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1,000분의 부처님이 금강정에 들어 해탈을 얻은 곳이기도 금강좌(金剛座)라 하고 깨달음을 얻 곳이라 하여 보리도량이라고도 한다.

4) 불족석(佛足石)

금강좌 좌측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걸음을 걸었다는 곳



▲ 수자타 집터로 가는 길 도중에 네라자라강에서 바라다본 전정각산. 깨달음을 얻기전에 잠시 머물렀던 산이다. 이 산에 유영굴이 있다.

에 족적이 돌로 새겨져 있다. 길이 약 90센티미터의 발바닥 모양에는 법륜(法輪), 물고기, 차크라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5) 아쇼카왕 석주

아쇼카왕은 이곳에 두 번 찾아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금강좌 사원을 세웠고 두 번째는 보리수 주변에 돌담을 치고 석주를 세웠다고 한다. 이 석주의 꼭대기에는 코끼리 머리상이 얹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무질런다 용왕 못 앞에 있는 석주를 아쇼카왕 석주라 부르고는 있지만 그 사실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아쇼카왕은 부처님과 관련된 곳을 위시하여 수많은 곳에 석주를 세우고 꼭대기에는 여러 가지 상(像)을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바라나시의 사르나트(녹야원), 산치, 베살리, 왕사성 등에 세운 석주 위에는 사자상을, 람푸르바에는 황소상을, 룸비니의 석주에는 말 머리상을, 붓다가야와 상카시아의 석주에는 코끼리상을 세웠다. 이는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가, 답마파다, 순타니 파타 등의 경전에서 묘사된 부처님의 용감하고 훌륭한 인격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특별한 석주상이 사르나트의 4사자상이다. 네 마리의 사자를 상으로 삼은 것은 여기 뿐이다. 아마 탄생지, 성도지 보다 초전법륜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듯하다. 전법(傳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6) 깨달음을 얻은후 부처님은 보리수 주변에 49일간 머물면서 명상을 하셨는데, 그곳이 일곱 곳인데,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7) 붓다가야 주변 유적지

① 수자타의 집터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유미죽을 공양물었던 우리 빌라 지방 성주의 딸 수자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마하보디 사원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② 전정각산(前正覺山)과 유영굴(有影窟)

네라자라강 건너에 몇 개의 산봉우리를 가진 바위산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전정각산이다. 이곳은 싯달타가 수자타의 공양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싯달타가 타락하고 더러워졌다고 여긴 다섯 도반들이 녹야원으로 떠나버린 후 싯달타가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바로 열반에 이르러 고자 하는 생각으로 찾아온 장소이다. 이곳의 동굴에 사는 용은 자신의 굴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간청하자 싯달타는 용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그림자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났다가하여 이곳을 유영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이 산을 깨달음(정각)에 이르기 전에 오른 산이라 하여 전정각산(前正覺山)이라 부른다. <밀교연구소 법경정사>



▲ 싯달타에게 유미죽을 공양물었던 수자타의 집터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수자타 사원.